

李朝後期 3大野談集의 編纂意識

임완혁*

【국문초록】

본고는 이조후기의 대표적인 야담집인 『溪西野談』·『靑邱野譚』·『東野彙輯』의 편찬의식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전대 문헌의 수용과정에 발생한 변화의 양상을 서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계서야담』은 필기적 요소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나, 『동패낙송』을 수용하면서 서사적 진전을 이루었다. 描寫의 具體性, 對話의 擴張, 虛構的 情況의 插入 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동패낙송』은 전형적인 야담집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문면의 서사성을 보충하고 야담으로서의 '구기(口氣)'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야담』의 편자는 서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전대의 문헌을 수용하였다. 『청구야담』의 편자는 각각의 문헌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傳, 雜著, 記事, 野談 등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 서사체를 수용하면서도 '사실성'의 의미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서사적 입장에서 전대문헌을 전재하여, 변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서사적인 측면, 예를 들어 傳의 경우 人定記述 및 評決, 개인적 所懷 등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있다.

『동야휘집』에서는 야담의 고유한 성격이 부정되면서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회귀적 경향은 형식상의 문제 뿐 아니다. 야담 작품 속의 생동하는 인간형이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의 틀에 묶이어 본래의 인물형상이 전혀 다른 면모를 띠기도 하며, 작품의 주제 의식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본래 작품의 구조를 왜곡시키거나 전혀 이질적인 자료를 결합시켜 서사적

* 영남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篇幅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상투적인 표현의 빈번한 사용, 의도적인 정황 연출, 문예적 표현의 강화 등에 의해 야담이 지니는 질박한 표현과 語氣가 사대부의 문예 취향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세기 후반의 야담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금계필담』, 『기관』 등의 작품을 검토해보면, 『동야회집』에서 추구하는 '교훈성'의 강조 및 사실성, 문예취향이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야담', '한문단편'이라 규정하고 있는 작품들은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인 차이와 기록자의 서술 의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야담』이 편자가 보여준 편찬의식은 야담의 실재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다. 또한 『청구야담』 편자의 서사 의식은 『천예록』·『동패낙송』·『계서잡록』·『동야회집』·『금계필담』 등 이조후기 야담집의 서술 방식이 전통적인 史書의 관점을 탈피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 전대문헌, 문헌전승, 편찬의식, 서사의식

1

야담 작품을 읽다 보면 줄거리가 비슷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於于野談』이나 『鶴山閑言』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형성된 자료에서 시작하여 『東野彙輯』·『錦溪筆談』·『溪鴨漫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話集에 수록된 작품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1980년대에 채록된 구비문학 자료에도 이조후기의 야담 작품이 온전히 실려 있기도 하다.

野譚은 '口演化'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서사체이다. 『鶴山閑言』·『雜記古談』·『天倪錄』·『東稗洛誦』 등은 그 대표적인 著作이다. 이에 비해 『記聞叢話』·『溪西野談』 등은 前代의 文獻을 직접 수록하거나 기록자가 見聞한 내용을 옮긴 것이며, 『靑邱野譚』·『東野彙輯』은 대체로

전대의 문헌을 옮겨 적은 것이다. 『청구야담』의 소재가 된 자료로는 『학산한언』·『계서잡록』·『綺里叢話』가 대표적이다. 『동야회집』의 소재가 된 자료로는 『於于野談』·『기문총화』·『동패낙송』 등을 들 수 있다. 『溪西野談』·『記聞叢話』는 저자의 見聞을 기록한 것이지만, 전대의 필기 작품을 그대로 전제한 예가 상당 수 확인되었으며, 야담집인 『동패낙송』의 영향을 받은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三大野譚集¹⁾이라 할 수 있는, 『溪西野談』·『靑邱野譚』·『東野彙輯』은 부분적으로 당대의 견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당대까지 유포되어 오던 이전 시기의 야담집을 選編²⁾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選編의 방식이 대체로 원 작품의 내용을 훼손시키지 않는 바탕 위에 단순 전재 또는 부분적인 변이를 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폭과 개입의 정도는 다르다.

이조후기 야담의 집중적인 발전은 『溪西野談』·『靑邱野譚』·『東野彙輯』으로 집중되면서 매듭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의 성격상, 이 세 자료에는 상호 중복되는 작품이 상당 수 존재한다. 이들은 시기적으로도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상호 공통적인 내용의 작품이라도 구체적인 문면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없다. 세 자료의 문면을 대비하여 고찰한다면, 각 자료의 편찬자가 지니고 있는 편찬태도 및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서사의식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삼대야담집이란 『계서야담』, 『청구야담』, 『동야회집』을 가리킨다. 이것은 어떤 학술적인 의미라기보다 이조후기 야담의 대표적인 저작이며, 동시에 야담집을 蒐輯한 대표적인 자료를 지칭하는 것이다. 19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야담의 발전적 양상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야담집을 再錄하거나, 轉載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세 야담집이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 2) 『청구야담』과 『동야회집』의 경우, 자료의 확인 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전대의 문헌을 집대성한 編에 가까우며, 『계서야담』의 경우 견문의 기록과 전대 문헌의 전사 즉 編과 著가 혼효되어 있다.

아울러 세 야담집의 비중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이 이조후기 서사산문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溪西野談』·『靑邱野譚』·『東野彙輯』이 전대문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의 양상을 편찬자의 서사의식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비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계서야담』, 『계서잡록』, 『기문총화』는 상호 공통된 작품이 많아 하나의 군으로 설정³⁾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되, 『계서야담』을 중심으로 한다. 『계서야담』은 권1부터 권6의 뒷머리 부분까지는 비교적 문학성이 강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권6의 나머지 부분에는 명사들의 짤막한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다. 『記聞叢話』에는 필기집의 짤막한 일화가 제법 수록되어 있다. 『기문총화』에서 출전을 밝힌 것을 몇 가지 나열해보면, 『公私見聞錄』, 『菊堂俳語』, 『寄齋雜記』, 『東人詩話』, 『搜聞鎖語』, 『於于野談』, 『慵齋叢話』, 『龍泉談寂記』, 『閑居漫錄』, 『靑坡劇談』 등 조선조의筆記類 저서가 대부분 포함된다. 그 수용방식은 '원전 이야기의 일부 수용', '원전 이야기에의 첨가 수용'으로 대별⁴⁾할 수 있으나, 서사적인 측면의 변화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다. 어쨌든 필기의 전통이 야담에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계서야담』보다 앞선 시기의 저작인 盧命欽의 『東稗洛誦』은 전형적인 '한문단편'집이라 할 수 있는데, 『溪西野談』은 『동패낙송』의 직접적인 영향

3) 김상조, 『계서야담계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91.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7.

4) 김상조, 위의 논문.

을 받은 것이다. 『계서야담』과 『동패낙송』을 검토해보면, 공통적인 소재를 지닌 것이 29작품이다. 두 자료의 문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같은 경우 서사분절 및 語氣와 구체적인 한자어·문장의 意味素 등이 거의 같다. 또한 작품 내용에 있어서도 사건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의 묘사나 대화에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兒鬻婢」·「一朵紅」·「古談」 등 주로 규장각본 권3(연세대본 火, 고대본 권2)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자료가 대체로 동패낙송의 자료를 전승한 것이다.

전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첫째, 平易한 文章 表現이 나타난다. 『溪西』⁵⁾에서 『東稗』를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면은 동일한 내용을 묘사하면서도 그 문장 표현이 바뀌는 것이다.

「騎牛翁」⁶⁾에서 李如松이 노인을 쫓아가는 장면을 살펴본다. ‘제독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직접 말에 올라 채찍을 휘두르며 가는데 말은 나는 듯이 달렸으나 노인은 한결같이 느릿느릿했다.(提督不勝忿怒 ①自跨馬執鞭而去 ②馬驟如飛 而老人之一向徐緩)’라는 『東稗』의 표현이 ‘제독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직접 千里名馬를 타고 검을 어루만지며 쫓아갔다. 노인의 소는 멀지 않은 곳에 앞서 있었으나 제독의 말은 나는 듯하였다.(提督不勝忿怒 ①自騎千里名騾 按劍而追之 ②牛行在前不遠 而騾行如飛及)’으로 바뀌었다. 물론 ‘말을 타고 노인을 쫓아간다’는 정황 설정은 같다. ①을 살펴보면, 『溪西』는 『東稗』의 馬를 千里名騾로, 執鞭을 按劍으로, 去를 追之로 각각 변화시켰다. 馬가 千里名騾로 바꾼 것은 天將의 신분에 걸맞게 하려는 의도와 ‘빠름’을 부각시켜 ‘노인의 말(소)’과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5) 이후, 『동패낙송』은 『동패』, 『계서야담』은 『계서』와 같은 방식으로 줄여서 사용한다. 여타의 야담집도 마찬가지이다.

6) 작품의 제목은 『동패락송』(『서벽외사 해외수일본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0)을 影印할 때 붙인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작용한 것이다. 執鞭을 按劔으로 바꾼 것은, 말을 세차게 몬다는 것만 상정하면 改惡이지만, 노인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의 표현이면서 아울러 뒤의 내용과 연관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追之’라는 표현은 ‘去’라는 용어보다 ‘주체의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②의 경우 문장의 표현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동일하다. 그런데 ‘牛行在前不遠’이란 표현을 추가하여 두 인물간의 거리(공간)를 구체화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문장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의도적인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둘째, 描寫의 具體性이 확인된다. 「騎牛翁」에서 노인이 李如松의 연회 장소를 범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을 예로 들어본다.

『東稗』：有村老一人騎牛，憂過其前，故爲犯導。

『溪西』：江邊上，沙場有一老翁騎黑牛而過者，軍校高聲辟除，而敢若聞，按轡徐行。 「騎牛翁」

이 부분은 사뭇 다르다. 『계서』는 ‘강가의 沙場’, ‘黑牛’, ‘軍校의 高聲’, ‘按轡’, ‘徐行’ 등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東稗』의 묘사가 단색의 풍경화라면 『溪西』의 묘사는 다양한 색채를 동원한 활동 사진에 비유할 만큼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셋째, 對話의 擴張 현상이 나타난다. 「一朵紅」의 한 부분이다.

『東稗』：官府의 內屬이 私家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면 소소하게 부탁할 일이 생겨 반드시 관가에累了 끼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제가 관아로 돌아간 후로는 영원히 발을 끊어 한양에 있을 때와 같이 해야 하니, 이것이 바라는 바입니다.⁷⁾

7) 『東稗』：纔過三日，紅自官，盛備宴需，携往本家，招集親黨，歡譚數日，紅告其父

『溪西』: 官府는 사가와 다릅니다. 관가의 內眷은 더욱 다른 사람보다 다릅니다. 부모와 형제가 혹여 인연이 있다고 자주 출입을 하게 되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관에서 일을 보는데 累가 됩니다. 저는 오늘 관아에 한번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니 부모 형제도 또한 번번이 기별을 하지말고 서울에 있을 때처럼 생각하시고 다시는 왕래하면 서로 연락을 하지 말아 내외의 구분을 엄하게 하십시오.⁸⁾

이 예문은 일타홍이 심희수에게 부탁해 자신의 고향으로 부임하도록 만든 후, 고향을 방문하여 친지에게 잔치를 베풀고 나서 부모와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두 예문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계서』의 경우 부분적으로 내용이 확장되면서 언어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官府는 私家와 다르다’라고 말을 꺼내어 객관적인 당위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전개하며 부모에게 私情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푼진하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동패』의 ‘제가 관아로 돌아간 후로는 영원히 발을 끊어 한양에 있을 때와 같이 해야 하니’라는 표현이 ‘저는 오늘 관아에 한번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니 부모 형제도 또한 번번이 기별을 하지말고 서울에 있을 때처럼 생각하시고 다시는 왕래하면 서로 연락을 하지 말아 내외의 구분을 엄하게 하십시오’라고 확대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이후의 행동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虛構的 情況의 插入이 자주 나타난다. 「癡叔」의 한 장면이다. 변화의 양상을 보이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제시해본다.

母曰: “官府內屬與私家, 數數通閨, 則小小子囑, 必多貽累於官家. 自吾歸後, 永相隔絕, 相如在京時, 是所望也.”

- 8) 『溪西』: 過三日後, 紅自官府盛具酒饌, 而往其本家, 拜見父母, 會親黨, 三日大宴衣服需用之資, 極其豐厚以遺其父母而言曰: “官府異於私室, 官家之內眷, 尤有別於他人, 父母與兄弟, 如或因緣而頻數出入, 則招人言, 累官政. 兒今入衙, 一入之後, 不得更出, 亦不得頻頻相通, 以在京樣知之, 勿復往來相通, 以嚴內外之分.”

『東稗』：及至再明，果有僧來，美貌便言，明秀可愛，願陪大監，寄宿舍廊。宰相百端稱托，僧也固口以懇，主人一切邁邁曰：“吾家有緊故，而此村後一菴淨潔可宿，師須就其處。”云云，則僧不得已移赴其菴。

『溪西』：及到其日，忽有一僧通刺，使之入來，狀貌堂堂，年可三四十許人也。問其居則居在江陵五臺山矣。爲覽嶺南山川而下來，遍看名勝，今方復路而竊伏聞大監清德雅望爲當世第一云。故以識荊之，願暫來拜謁，今則日已晚矣，願借一席而寄宿，以爲明朝發行之地，何如？西厓曰：“家間適有事，故不可以生面人寄宿。此村後有佛菴，可暫留宿待朝下來，可也。”其僧萬端懇請，而一向牢却，僧不得已隨童向村後之菴。

이 부분은 「癡叔」에서 어떤 승이 재상의 집을 찾아와서 그곳에 하룻밤 묵을 것을 청하며 옥신각신하는 장면이다. 『東稗』와 『溪西』를 비교해 보면 宰相이 치숙의 말대로 僧을 재우지 않고 결국 마을 뒤에 있는 암자로 보낸다는 기본 스토리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東稗』와 달리 『溪西』는 그 장면이 자못 현장을 재현한 듯하다. 『동패낙송』의 인물은 이 장면에서 ‘독립된 인간’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溪西』는 좀 더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장 인물에 일정한 성격 - 나이, 거주지, 취미, 인품 등을 갖춰주면서 ‘實在的人物’로 만들어 주며 그의 행동에 ‘眞實性’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 작품의 ‘眞實性’을 강화시키는 데까지도 일조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궁극적으로 독자의 흥미를 고양시키는 요소가 된다. 또한 ‘실재적 인물’에 의한 ‘실제적인 행동’은 이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반응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결국 위 예문의 경우, 허구적 정황의 삽입을 통해 작품에 진실성을 부여하고 등장인물을 ‘성격을 지닌 인물’로 만든다. 또한 작품에 現場感을 불러일으키며 독자의 흥미를 고양시키고 있다.

다섯째, 文章 表現의 俗化와 主題 意識의 停滯가 나타난다. 다음은 「柳器匠壻」에서 李長坤이 官아에 柳器를 받치러 가려는 상황이다.

『東稗』 : 주옹이 말하길, “내가 매번 몸소 가더라도 대부분 퇴짜를 맞으니 자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결단코 무사히 바칠 수 없을 것이니 맡겨 보낼 수 없네.”⁹⁾

『溪西』 : 그 장인이 책망하여 말하길 “그대처럼 잠에 빠져 사는 놈은 東西도 구별할 줄 모를텐데, 어찌 官가에 유기를 납부할 수 있겠는가? 내가 몸소 납부 하더라도 매양 퇴짜를 맞는데 자네 같은 위인이 그 어찌 무사히 잘 납부할꼬.”하며 허락하려고 하지 않았다.¹⁰⁾

두 예문에서 나타나는 일차적인 차이는 『溪西』의 표현이 매우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라는 점이다. 『溪西』에서는 ‘癡駭者’란 표현을 ‘渴睡漢’으로 바뀌어 대화의 모두에 사용하여 노옹의 이장곤에 대한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아울러 ‘不知東西’라고 보충까지 하여 한껏 이장곤을 능멸하고 있다. 또한 『溪西』는 ‘如君者’란 표현을 사용하여 이장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다. 이 문장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현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핵심은 ‘구어적인 문투’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3

『청구야담』은 이조후기의 가장 전형적인 야담집으로 한글본이 전해질 정도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편자의 직접적인 견문에 의한 저작

9) 『東稗』 : 主翁曰 : “吾每自行, 亦多見退, 如君癡駭者, 決難無事準納, 不可付送矣.”

10) 『溪西』 : 其婦翁責曰 : “如君渴睡漢, 不知東西, 何可納器於官門乎? 吾雖親納之, 每每見退, 如君者, 其何可無事善納乎?” 不肯許之.

은 아니며, 기존의 문헌에 있던 내용을 모은 編纂書이다. 전대의 문헌에서 내용을 뽑아 편찬하는 예는 매우 많은데 야담류를 전통적인 범주의 著作物로 인지하지 않았던 데서 기인한다.

『청구야담』은 기왕에 『학산한언』과의 관계가 검토되면서 전대문헌 수용의 양상이 논의되었다. 『청구야담』과 직접 관련 있는 자료는 『학산한언』¹¹⁾, 『계서야담』, 『기리총화』 등이 대표적이며, 『直庵集』의 「孝妓斗蓮傳」, 『石堂遺稿』의 「友難」, 『耳溪集』의 여섯 편의 傳¹²⁾, 『厚齋全書』의 雜著에 실린 네 작품¹³⁾ 등을 들 수 있다. 『청구야담』이 전대문헌을 수용하면서 발생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학산한언』을 통해 개략적으로 밝혀졌다. 『학산한언』은 전형적인 야담집이 아니라, 필기적 성격을 지니면서 야담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다. 때문에 이 두 자료의 존재 양상은 필기적 서술과 야담적 서술의 경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청구야담』에 수용된 『계서잡록』 소재 작품은 미세한 字句의 차이 외에는 서술적 측면의 변화가 없지만 『학산한언』을 수용한 작품은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나 야담과 지향을 달리하는 서사산문 - 記事, 傳, 雜著 등에 실린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변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이는 記事, 傳, 雜著 등에 실린 서사적 산문과 『청구야담』에 전재된 것이 비록 그 내

11) 조희웅, 앞의 책.

정명기, 청구야담에 나타난 전대 문헌 수용 양상 연구-학산한언을 중심으로, 『연민학지』 2집, 연민학회, 1994. 앞의 논문.

12) 김영진, 「기리총화 연구」, 『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에서 『청구야담』의 전대 문헌 전재의 실상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효기두련전」과 「우난」이 『청구야담』에 수용되었음을 밝혔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이계집에 실린 전 가운데 『청구야담』에 전재된 작품을 5화로 파악하였으나, 실제로는 「針隱趙生光一傳」, 「洪孝子次奇傳」, 「張義士厚健傳」, 「淸華李公陽昭傳」, 「皮載吉小傳」, 「義士守門將文紀房傳」 등 6화가 『청구야담』 권 6-25부터 나란히 실려있다. 이하 『청구야담』에 대한 서지사항은 6-25처럼 권수 - 작품 번호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3) 줄고,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00.

용은 동일하더라도 서사적 지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記事文의 예를 본다.

「肆舊習與熊鬪江中」¹⁴⁾는 盧貴贊이란 패악하면서도 독특한 성격을 지닌 사공에 대한 이야기로서, 노귀찬과 措大와의 사건 및 곰과의 싸움이 중심 내용이다. 이 작품은 朴準源(1739-1807)의 『錦石集』에 들어있는 「書船人盧貴贊事」¹⁵⁾를 옮겨 놓은 것이다. 「書船人盧貴贊事」는 문체상 記事에 속한다.

노귀찬은 재상가의 노비로서 죄를 지어 여주로 도망가 있으면서 뱃사공으로 생계를 꾸리고 살아가는데 悖慢無賴한 성품으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다. 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보면, 「書船人盧貴贊事」에서는 전해들은 사실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여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¹⁶⁾. 이는 글쓴이 자신이 지닌 정보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노귀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견문의 경위를 소개¹⁷⁾하여 위 문장의 或云과 호응하면서 '轉聞의 기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肆舊習與熊鬪江中」에서는 원작에 傳聞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분적인 문장의 변화를 통해 '객관적 사실'로 기술¹⁸⁾함으로써 노귀찬의 신원과 성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원저자인 박준원의 서술 의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실은 작품의 말미에서 곰과 싸우다 죽게되는 저간의 상황을 소개한 후, '뒤에 들으니 추즙산에 곰이 있었는데 사냥꾼의 총에 맞아

14) 『청구야담』 4-9

15) 박준원, 『금석집』, 『한국문집총간』 255, 161면.

16) 盧貴贊者麗州人, 不知自何來 或言宰相家叛奴, 自京而逃 以刺船爲業, 然素悖慢無賴, 以惡船人聞於沿江云.

17) 州中人金大潤爲余道之如此, 或言擊雄處卽馬巖 而非白巖云.

18) 盧貴贊者, 以宰相家奴得罪叛, 走逃在麗州, 以刺船爲業, 然素悖慢無賴, 以惡船人聞於沿江

죽었는데 바로 이 꿈이라고 하더라'19)라고 하여 꿈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실 박준원이 '金大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정보 탈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書船人盧貴贊事」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논평이 삭제되었다.

결국 어떤 내용을 수용하면서 객관적인 정보 및 논평 등 서사체의 온전한 모습에 방해되는 요소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면서 서사적 안정성을 추구한 것이며, 원 작자의 논평을 제거한 것도 작품의 초점을 서사에 놓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耳溪集』에 있는 총 10편의 傳 가운데 「針隱趙先生光一傳」 등 6편의 傳이 『청구야담』에 수용되어 있는데 그 양상은 일률적이지 않다. 6편 가운데 「淸華李公陽昭傳」, 「皮載吉小傳」, 「義士守門將文紀房傳」 등은 『이계집』의 문면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전의 기본 요소인 평결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그렇다고 평론 부분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평결 부분 가운데 일부를 취해 나름의 소회²⁰⁾를 드러내고 있는 바, 전의 형식을 일탈했다는 점에서 전과 구별²¹⁾되며 그 서사적 지향도 다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구야담』 소재 작품이 지니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즉 서사성의 추구라는 적극적 지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도 여전히 교훈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²⁾

19) 後聞趨楫山中有熊，爲獵砲所中死，卽是熊云.

20) 이 소회는 전의 작가가 지닌 소회에서 벗어나 '이야기 전달자'의 소회가 된다. 이야기 전달자는 청구야담 편자이지만, 편자의 위상은 가능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편자의 소회도 이야기 서술자의 위상에 가려져 있다.

21) 이 점은 동아휘집이 매 작품의 말미에 外史氏曰을 붙여 편자의 견해를 붙인 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22) 그러나 작품의 선별 의식을 보면, 중세적 가치관으로서 포폄되어야 할 충효열 및 도덕적 인물 등에 대한 것은 의식적으로 배제되어 있다.(『이계집』의 전 가운데 李處士夢

「청화이공양소전」의 서두는 ‘李陽昭字汝建 高麗代言師吉之子也 與我太宗同年生洪武壬戌 又同中進士’로 시작된다. 이 작품을 전제한 「李清華守節遯世」²³⁾에는 李陽昭字汝建 麗末人 與我太宗同年生洪武壬戌 又同中進士’로 되어 있다. 이양소가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점은 관심 밖이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가계를 중시하는 전의 전통적인 서술 방식²⁴⁾과 다르다. 전은 규범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는 장르다. 때문에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입전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질서의 제 관계에서 산생된 인간을 입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의 서두 부분에 입전 인물의 가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제시되는 것은 이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야담이 지향하는 바는 이러한 관습적 인물의 삶이 아니라 객관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있는 바, ‘개인의 삶’ 자체를 중시한다.

『청구야담』의 편자는 기존의 정통적 관점²⁵⁾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모색한 것이다. 원 작품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사적 요소로서 긴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는다. 「張義士厚健傳」은 장후건이 명칭 교체기의 격동기에 보여준 對淸 鬪爭 舉事를 담은 내용이다. 주인공인 후건의 행위는 단지 형제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뿐 아니라 집안의 내력과 연결된다. 「장의사후건전」에 후건의 가계가 장황하게 소개²⁶⁾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 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張義

鯉傳 만 유독 탈락되어 있는데, 유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23) 『청구야담』 6-28

24) 전의 서술 방식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경향 연구』 참조.

25) 事實性, 歷史性, 教訓性은 傳, 記事, 筆記, 野談, 雜著 등의 제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요소다.

26) 其先本安東人, 遠祖儷, 仕高麗, 貶官義州, 仍家焉. 其子思吉, 聞我太祖軍威化島, 杖策詣轅門, 陳舉義撥亂之策. 及開國, 冊元功, 思吉子哲事太宗, 參定社勳 其後有鴻壽者. 當壬辰亂, 從軍守猪灘, 狙擊倭多殺獲, 以功拜訓練僉正, 是爲厚健大人也. 厚建兄弟五人, 皆有膽勇.(홍량호, 『이계집』, 『한국문집총간』, 316면.)

士爲國捐生」²⁷⁾에서는 가계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삭제된 채 ‘張義士名厚建 龍灣人也 兄弟五人 皆有膽勇’라고 간단히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

전과 야담은 동일한 소재와 내용을 지니는 작품이라도 그 지향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이 야담 작품으로 바뀌면서 전의 기본 요소인 가계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은 우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야담의 장르 지향²⁸⁾ 및 서술자의 서술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針隱趙生光一傳」에서 이계는 의원 조광일을 알게 되는 과정을 ‘余僑居湖右 不能其風土 問士人以醫 皆曰 無良者 強之乃以趙生對 生名光一 其先泰安大姓……’으로 설명하고 있다. 입전 인물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읽힌다. 이 記述은 「침은조생광일전」이 이계가 직접 경험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청구야담』은 ‘湖右趙生名光一 嘗寓居洪州合湖之面 足未嘗跡朱門 門亦無顯者迹’로 작품이 시작된다. 이계의 경험담으로 구체적인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는 원작품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조광일은 이계가 만났던 구체적인 인물에서 湖西 지방의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인 시점의 인물이 아니라 이야기 속의 인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더 이상 이계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된 이계의 ‘傳 作品’이 아니다. 서술 방식의 변화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된 전을 多衆이 共有하고 구연하는 ‘이야기(야담)’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 작품의 전 과정에 관철된다. ‘내(耳溪 - 인용자)가 일찍이 조생의 집을 들렀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있었는데…’²⁹⁾라고 하면서 趙生의 남다른 면모를 소개한 원작품의 기술은 ‘언젠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27) 『청구야담』 6-27

28) 한편 『학산한언』을 전제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학산한언』이 장르상 야담에 속하지만 아직 전통적 글쓰기의 방식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9) 吾嘗過生廬，嘗清晨早起，有老媪檻樓匍匐而叩其門曰 …(『耳溪集』)

있었는데...³⁰⁾로 되어 있다. 이계가 직접 목도한 일화가 조생의 삶 과정에서의 어느 날인 언젠가(嘗)로 바뀌었다. 심지어 이계가 조생과 주고받은 이야기³¹⁾에서도 이계의 존재는 사라졌다. 이계의 직접적인 언사³²⁾에는 조생에 대한 연민의 정이 배어있다. 또한 조생의 답변 이후 이계가 느낀 소회가 기술되는 바, 미약하지만 등장인물 상호간의 작용과 영향³³⁾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이 『청구야담』에서는 불특정한 어떤 이와와 대화로 환치되어 있으며, 이계의 情懷는 이계의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것으로 바뀌어 일부가 수용³⁴⁾되어 있을 뿐이다.

기존 작품에서 추구한 서술 의도를 무시하고 서사적인 내용만을 취한 예로 「宰錦城杖殺金漢」³⁵⁾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金榦(1646-1732)의 『厚齋集』 雜著에 실린 것을 전제한 것이다. 김간은 朴詳(1474-1530)에 대한 일을 기록하면서 작품의 말미에 ‘유전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³⁶⁾고 밝히고 있다. 김간은 이 이야기를 놀재 박상의 외손인 李漢昉에게 듣고서 박상의 行狀에 그 사실이 실리지 않은 것을 의심하게 된다. 이야기의 독특함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행장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허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고증을 통해 이한방에게 들은

30) 嘗清晨早起, 有老媪襤褸匍匐而叩其門曰 …

31) 『이계집』에 ‘余嘗從容問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청구야담』에서는 ‘或問曰’로 바뀌어 있다.

32) 或問曰: “醫者賤技也; 閭巷卑賤也, 以子之能, 何不交貴顯取功名, 乃從閭巷小民遊乎? 何其不自重也?”

33) 余始聞而蹙爾, 既而嘆曰: “… (中略) …, 趙生術高而不干名, 施博而不望報, 趁人急而必先乎窮無勢者, 其賢於人遠矣. … (下略)”

34) 앞의 주에 밑줄 그은 부분이 조광일의 답변 뒤에 붙어 있다.

35) 『청구야담』 1-24

36) 此事公之外裔孫李漢昉言于余, 按此事, 不見于公行狀中, 已甚可疑. … (중략) … 以此觀之, 李之所傳, 公當燕山時, 自求爲羅州牧, 打殺古里及仰瞻天顏. 是日歸鄉之說, 其誤明白. 況公於丙戌年, 以重試壯元, 始陞堂上, 則反正後, 卽拜副提學之說, 亦誤矣. 此數事既誤, 則此外又安知其無謬誤耶? 流傳之言, 不可盡信也.

이야기가 史實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상의 사건에 대한 관심과 이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考究하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결국 김간의 서술 의도는 궁극적으로 박상 이야기의 荒誕함을 드러내려는 데 있다.³⁷⁾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전제한 「宰錦城杖殺金漢」에서는 후재의 서술 의도인 황탄함에 대한 경계가 전혀 없다. 때문에 김간이 시시콜콜 따졌던 尾註의 내용은 삭제되어 있다. 결국 『청구야담』 편자는 김간이 애초 가지고 있던 서술 의도를 무시한 것이다. 이처럼 『청구야담』의 편자는 전사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지니는 고유한 의식과 감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편찬에 임하고 있다.

『청구야담』에는 전의 사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제거되어 있다. ‘遂與兵使搏戰而死 卽丁酉八月十六日也’는 「義士守門將文紀房傳」에서 남원 전투에서 文紀房이 최후를 맞이한 상황이다. 여기서 ‘丁酉八月十六日’은 문기방이 사망한 날이 된다. 그러나 『청구야담』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진다. 사건이 발생한 특정한 날짜가 진실의 한 표징³⁸⁾임을 고려할 때,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를 삭제한 것은 『청구야담』 편자는 객관적 사실성에 대한 의미를 고의로 간과한 것이다.

‘又曰 往年龍骨大名英國爾堡之來 執三公六卿 因索金尙憲諸公而去’는 「張義士厚健傳」의 한 대목으로 밑줄 친 부분은 간주에 해당하는 부분³⁹⁾인데, 『청구야담』에서는 간주가 삭제되어 있다. 사건 전개에 중요한 기능을

37) 기실 『후재집』의 잡저 부분에 실린 내용 가운데, 현재의 관점에서 허황된 이야기라 할 수 있는 평구 박진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황탄함에 대한 警戒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인다.

38) 루샤오핑 지음, 조미원 등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168면.

39) 이 작품에는 이처럼 간주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今週召被虜人解讀之, 大怒卽遣使, 使名楊舒阿貴來.

하지 않는 실명의 의미를 무시한 것이다.

작품의 서술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삭제하거나 불특정한 인물로 바꾸어 놓고 있다. 申暲(1696-1766)의 『直庵集』 소재 「孝妓斗蓮傳」이 傳의 정통적 방식으로 서두가 시작⁴⁰⁾되었다면 이를 수용한 「傳書封千里訪父親」⁴¹⁾에서는 표현에 변화를 주⁴²⁾면서 얼핏 두련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이야기를 끝나가다가 나중에 두련이 등장하는 방식의 서술이 이루어진다. 成任의 任所라는 문면이 동향 문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봉덕에게 두련의 소식을 전해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서도 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傳書封千里訪父親」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士人 아무개의 종이 한양에서 내려와 편지를 전⁴³⁾’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효기두련전」에는 ‘처사 곽진망의 종이 장령 안운경의 집에서 돌아와 편지를 전⁴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도 역시 일관된 서술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傳은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사실성의 관점에서 볼 때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세부적인 내용을 불명확하게 처리한다면 전으로서의 위상에 커다란 손상이 초래된다. 이에 비해 야담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다. 또한 보조적인 인물이 특정한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傳書封千里訪父親」에서 실명을 삭제하거나 불특정한 사람으로 바꾼 것은 구연의 구기를 느끼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정보가

40) 斗蓮北靑妓也，始湖西大興斗蓮里士人也。車德鳳，隨同鄉文官，往北靑任所，爲衙客。

41) 『청구야담』 8-13

42) 車德鳳，大興斗蓮里士人也。隨同鄉文官，往北靑任所，爲衙客。

43) 忽有同里居士人某之奴，自京下來，投傳書封而謂。(『청구야담』 8-13)

44) 忽有處士郭振綱奴，自掌令安慶運家來，傳書封及衣袴參木等種。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의도적인 손타기(오랜 동안 구연되었음)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

『東野彙輯』의 序文을 보면, 편찬 과정에서 ‘『於于野談』과 『記聞叢話』를 보았다’⁴⁵⁾는 언급이 있다. 그러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동야회집』은 상기 두 자료 외에 참고가 될만한 여러 자료들을 두루 사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東野彙輯』의 編者는 前代 文獻을 受容하면서 그 문헌을 온전히 수용하기보다는 작자의 개인적인 의도에 의한 변화를 시도한 바, ‘장편화’와 ‘종합화’로 요약하여 정리되기도 하였다. 종합화란 등장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데 모으는 것 또는 비슷한 소재의 다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인물의 이야기로 결집시키는 것 등을 지칭한다.⁴⁶⁾ 이러한 원리는 『기문총화』나 『어우야담』 등 서문에서 밝힌 자료의 수용양상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서문에서 제시하지 않는 자료의 하나인 『동패낙송』에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이 나타난다. 『동야회집』의 편자는 『동패낙송』과 『기문총화』를 독서한 후에 각각의 긍정적인 면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기존 이야기의 존재 양태를 ‘작품’으로 이해하지 않고 가변성을 지닌 ‘이야기’로 인식한 결과이다.

한편, 『東稗洛誦』 소재 작품은 절반 정도가 다른 작품과 결합되면서 『동야회집』에 수용되었다. 그 결합의 대상은 『東稗洛誦』의 관련 작품⁴⁷⁾ 및

45) 余於長夏調疴，偶閱於于野談記聞叢話，頗多開眼處，惟是記性衰耗，無以領略萬一。(『東野彙輯』序)

46) 두정남, 「동야회집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47) 「接神贈驂甦痘兒」는 『동패』의 「痘神」과 「公州可亭子村」을, 「朴總角登對宸陛」는

어우야담⁴⁸⁾이나 『記聞叢話』에 수록된 관련 일화⁴⁹⁾ 외에 확인되지 않는 작품⁵⁰⁾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동야회집』에서의 변화가 꼭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東稗洛誦』 관련 작품만을 놓고 본다면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贖碎銀圖占仕路」⁵¹⁾는 『東稗』의 「朝報」가 변형된 작품으로서, 『東稗』→『溪西』→『記聞』→『東野』의 경로를 통해 『東野』에 수용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잘 알려져 있듯이 水汲婢의 신분으로 禹夏亨의 첩이 된 여주인공이 가난한 우병사를 도와 그를 현달시키고 自我를 實現한 이야기이다.

『東野彙輯』을 살펴보면 작품의 줄거리는 『東稗洛誦』이나 『記聞叢話』와 유사하며, 문장은 대체로 『記聞』을 수용하고 있다. 「贖碎銀圖占仕路」는 ‘朱烈女 具兵使某之妾也’라고 시작된다. 주인공은 『記聞』에서처럼 水汲婢를 했던 여인이 아니고 ‘村女 朱氏’라고 설정되어 있으며, 才質이 있어서 具兵使에게 사랑을 받았고 ‘베 짜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의복과 음식 등을 준비하여 봉양하기를 거른 적이 없’⁵²⁾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인물 묘사는 操身한 여인이라는 전통적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칭첩」과 「박탁」을 각각 수용하였다.

48) 「大江立案成鋸富」 및 「戲納友發奸置法」 등이 대표적이다.

어우야담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윤세순, 앞의 논문 참조.

49) 「借弩手 鬢復髻」의 경우 노옥계와 관련된 작품인데, 기문에는 그와 관련된 일화가 수록되어 있는 바, 『동야』는 이 두 작품을 하나로 합치고 있다. 동야회집의 기문총화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홍성남, 「동야회집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2 참조.

50) 『동야회집』이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결함을 시도하였는지는 다양한 자료의 섭렵이 있는 연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 부분은 이후 보충하기로 한다.

51) 『동야회집』 권3-13(大阪府立圖書館本)

52) 女勤於女紅, 衣服飲食, 供奉無闕.(『동야회집』)

한편, 『記聞』에서는 여인이 자신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몸을 보존하기 위해 의탁할 곳을 찾았다. 그녀는 禹夏亭과 헤어지면서 '저는 賤人입니다. 先達님을 위해서 어떻게 守節을 할 수 있겠어요. 응당 某處에 몸을 의탁하여 先達님께서 本道の 元이 되신 연후에 그 날로 응당 찾아가 謁見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날로 期約을 삼을 터이니 원컨대 선달님께서는 保重 保重 하십시오'53)라고 하였다. 이러한 여인의 言辭는 이미 우하형에게 그 동안 모은 재산을 줄 때부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그 계획 중에 바로 '자신의 몸을 某邑의 將校에게 맡기는 것'이 들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여인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일련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東野』에서는 집안 사람들의 핍박을 받은 여인이 이로 인해 不得已하게 의탁할 곳을 찾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인이 具兵使와 이별할 때 한 말을 보면 '부디 이를 잘 이용하여 벼슬을 구하셔서, 칩으로 하여금 희망과 정성이 헛되게 하지 마세요'54)라는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여인의 형상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記聞』에서 描寫된 여인의 人物 形象에 대한 『東野彙輯』 편자의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記聞』에서의 여인은 일을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인물로서, 이후의 모든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심지어 그녀는 임시로 몸을 의탁하기 위해 生面不知의 남자와 '作配'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의 태도는 『東野彙輯』 編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므로 『記聞』에서 자세히 묘사된 적극적 인물 형상을 단지 烈女의 범주에 국한시킨 것이다.

「朝報」를 수용하면서 범한 오류는 '수급비 노릇을 하던 천한 신분으로,

53) 吾賤人也，爲先達，何可守節？當托身於某處，先達作宰本道然後，即日當進謁矣。以是爲期，願先達保重保重！（『기문총화』 연대본）

54) 幸方便求仕，毋使妾奉虛望誠也。（『동야회집』 대판본）

합리적인 사고로 자기 인생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천해 가는 현실주의적 인간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烈女의 범주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작품에 관철시킴으로써 '하층민 속에 등장하는, 합리적인 사고와 실천적인 노력으로 현실에 대처하는 현실주의자인 새로운 인간상'⁵⁵⁾을 변질시킨 점이다.

『동야회집』 편자가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면을 하나의 예를 통해 제시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여타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내용의 보수적 경향은 문장의 표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문장의 변화를 장편화의 원리로 분석한 예를 보면, '장편화의 원리는 패관문학과 구별되는 고담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편자의 노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장편화하는 과정에서의 수식의 부가를 통해 표현상의 문학성을 확장하고, 삽화의 확장을 통해 서사성을 부가하여 패관문학과는 구별되는 야담 양식의 변별적 특성을 모색해 보는 의지라 할 수 있을 것'⁵⁶⁾이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서사성, 문학성 등의 관점에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야담 고유의 성격 및 개별 장르의 내적 발전이란 측면을 무시한 경향이 있다. 서사적 확장이나 문학성의 획득은 기존 양식의 충실한 내적 토대와 그 장르적 성격을 근거로 이루어질 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文藝趣向의 發顯과 常套的인 描寫 및 意圖的인 情況 演出 등은 본작품이 지니는 진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繡衣給訪茶母家」⁵⁷⁾를 보면, 觀相을 잘 보는 한 武弁이 새로 부임을 앞두고서 自身の 觀相을 보니 任所에서 어사의 손에 죽게 될 상이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다는 것이다. 武弁이 자신의 觀相을 보고 놀라는 장면을 『東

55) 이조한문단편집, 「朝報」 해제.

56) 두정남, 위의 논문, 46면.

57) 『동야회집』 권7-6

稗』에서는 ‘그 무변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근심하였다(厥弁大異爲憂)’라 하여 簡略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東野』에서는 張裕의 故事⁵⁸⁾를 통해 그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永興 府使는) 매우 놀라고 걱정하여 張裕가 형을 받아 죽을 것이란 사실을 알고 땅에 거울을 내던지 듯 하였다’라고 된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독자에게 ‘永興 府使의 심리적인 상태’를 푼진하게 전달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황한 문장의 변화가 아니라, ‘大以驚憂’라는 표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보충하고 싶은 생각을 엉뚱하게 ‘中國의 故事’에서 끌어다 해결하려 한 태도이다.

『東稗』 + 『記聞』 → 『東野』의 경로에 해당되는 「朴總角登對宸陛」에서, 李浣이 朴鐸의 局量을 헤아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여 박탁의 母親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지금 조정에서는 바야흐로 대사를 도모하면서 인재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차마 분주히 떠날 수가 없어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여 공명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⁵⁹⁾

○지금 국가에서는 인재들을 불러들이는데 제가 이 아이를 보니 재주가 크게 쓰일 만하여 이 아이와 함께 ‘용을 끌어 잡고 봉황에 붙듯이 임금에게 身命을 맡겨 立身出世하려고 하는데 ...⁶⁰⁾

두 例文의 文套를 비교해 보면 『記聞』은 그 어투가 매우 평범하면서 구어적이다. 그러나 『東野彙輯』은 전혀 다른 느낌으로서, 실제 현장에서의 대화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攀龍附鳳’은 三國志 蜀 秦宓傳에 나오는

58) 又曉相術，每舉鏡視面，自知刑死，未嘗不撲之於地也。(『三國志』卷42. 蜀志).

59) 見今朝廷方營大事，招迎人材，某見此兒，不忍遽別，欲與之同行以圖功名... (『記聞』)

60) 今國家招納人器，某見此兒，材堪大用，欲與之攀龍附鳳，致身青雲 ... (『東野』)

말⁶¹⁾로 제왕을 좇아 功業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혹여 이 用語가 士類間의 대화에서 사용되었거나 일반 文章에 사용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대화의 대상은 시골의 아낙네이며 더욱이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등장인물 사이의 대화가 현실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담이 지니는 고유한 성격인 민중성과 구연화의 긍정적인 점을 看過⁶²⁾하고 단지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취급하면서, 이를 자신의 존재 기반인 '士의 生活'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의식⁶³⁾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 작품이 지니는 긍정적인 면을 외면하고 '主觀的 認識'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면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文藝的 趣向을 바탕으로 한 典故의 활용은 바로 이러한 '士의 世界'가 반영된 것이다.

5

본고는 이조후기의 대표적인 야담집인 『溪西野談』·『靑邱野譚』·『東野彙輯』의 편찬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전대 문헌을 수용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편찬자의 서사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61) 如李仲元不遭法言，令名必淪，其無虎豹之文故也，可謂攀龍附鳳者矣。(『三國志』，蜀書 秦宓傳)

62) 『동야회집』의 편찬 과정에서, 출전을 밝히지도 않고 중국의 필기집인 『諧鐸』의 자료를 전제한 것도 이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병찬, 「동야회집 연구-청대 문언소설집 『諧鐸』의 修潤을 중심으로」(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참조.

63) 두정남, 「동야회집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논의의 前提가 되었던, 전대 문헌의 수용은 세 야담집 모두 분명하게 나타난다.

『계서야담』은 시기적으로 완전한 야담의 서술 의식을 갖추지 못한 과도기적 위치에 존재하는 저작이다. 때문에 필기적 요소의 잔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패낙송』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서사적 측면의 진전을 도모하여, 平易한 文章 表現, 描寫의 具體性, 對話의 擴張, 虛構的 情況의 挿入 등을 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동패낙송』에서 이룩한 서사적 성과를 좀더 보충하여 발전시킨 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장 표현의 변화를 꾀하면서도 '문언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지 않은 면은 '야담의 고유한 성격'을 온전히 받아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청구야담』은 『계서야담』을 수용하면서 거의 주관적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그 문면을 가능한 온전히 수용하고 있으며, 개별 작품에 대해 그 존재의 위상을 거의 훼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산한언』의 수용과정에서는 일정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서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청구야담』이 『학산한언』과 『계서야담』을 수용한 양상을 대비해보면, 결국 『학산한언』의 문면이 '야담의 격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傳, 雜著, 記事文의 수용에서 나타나는 양상도 『학산한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태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전대의 문헌을 수용하면서 야담의 격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은 수용하면서도 이야기 작품으로서의 격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청구야담』의 편자는 각각의 문헌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파악하지 않는다. 역사적인 사실조차 『청구야담』이라는 서명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꾀한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틀을 벗어버리려는 의지가 자

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제 서사체에 반영되어 있던 서술 의식-견문의 경로를 밝히는 등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⁶⁴⁾, 正史에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는 의식⁶⁵⁾, 世敎에의 도움을 위한 교훈성⁶⁶⁾, 개인적인 체험과 가문의 일을 기록⁶⁷⁾으로 남기려는 관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야담』에 수록되어 있는 서사체는 비록 그 내용이 전재의 대상이 된 문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사성의 고양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⁶⁸⁾

한편, 『동야회집』에서는 『청구야담』과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기존의 야담이 추구했던 ‘전통적 장르의 파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동야회집』 소재 야담의 서두는 傳 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인물에 관한 인적 사항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며 결말 부분 역시 실증성과 고증성을 지닌다.⁶⁹⁾ 『동야회집』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전대 문헌을 교훈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장치를 갖춘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회귀적 경향은 형식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야담 작품에 살아있는 생동하는 인간형이 ‘전통적 규범과 가치관’의 틀에 묶이어 본래의 인물형상과 전혀 다른 면모를 띠기도 하며, 작품의 주제 의식이 왜곡

64) 이러한 양상은 선초 필기류에 속하는 『용재총화』등에서도 확인되며, 견문을 기록한 『잡기고담』, 『천예록』, 『동패낙송』 등의 후기 야담집에서도 공통된 양상이다.

65) 이러한 사실은 『어우야담』을 비롯하여 이조후기의 야담집 서문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 관련자료집 I』, 태학사, 2001 등 참조)

66) 『천예록』, 『잡기고담』, 『동야회집』, 『금계필담』 등의 서술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67) 필기류 저서에 보이는 일화 및 『어우야담』, 『학산한언』, 『계서잡록』에 나타나는 서술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68) 이러한 사실성에 대한 문제는 역사와 소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역사에서 허구로』(루샤오핑 지음, 조미원 등 옮김, 길, 2001), 212-224면 참조.

69) 두정님, 앞의 논문.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종합화로 규정된 양상의 경우에도, 본래 작품의 구조를 왜곡시키거나 전혀 생뚱한 자료를 결합시켜 서사적 篇幅을 확대하는 예도 있다. 상투적인 표현의 빈번한 사용, 의도적인 정황 연출, 문예적 표현의 강화 등에 의해 야담이 지니는 질박한 표현과 語氣가 사대부의 문예취향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동야회집』 편자의 태도는 대체로 기존의 작품을 교훈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기존 작품의 서사적 완성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세기 후반의 야담에서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금계필담』, 『기관』 등의 작품을 검토해보면, 『동야회집』에서 추구하는 ‘교훈성과 사실성의 강조’ 및 ‘문예취향의 강화’ 등이 나타난다.

결국, 우리가 ‘야담’, ‘한문단편’이라 규정하고 있는 야담집에 실린 작품들은 시기적인 차이와 기록자의 서술 의도에 따라 여러 양상을 띠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필기류에 비해 서사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서사성’의 질적 측면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서사성의 고양은 이조후기 소설의 유행, 중국 소설의 대량 유입 등 사회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며, 개별 편자의 층위는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청구야담』의 편자가 보여준 편찬의식은 야담의 실재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야담』 편자의 서사체에 대한 의식은 『천예록』·『동패낙송』·『계서잡록』·『동야회집』·『금계필담』 등 이조후기 야담집의 서술 방식이 전통적인 史書의 관점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때, 상당히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편찬 과정에서의 취사선택 양상을 좀 더 꼼꼼히 따져본다면 야담의 서사적 층위와 본령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자료

- 『溪西野談』 연세대본, 규장각본.
『記聞叢話』 국립도서관본, 장서각본.
『靑邱野譚』 해외수일본 을본, 아세아문화사, 1985.
盧命欽, 『東稗洛誦』 동양문고본.
李羲平, 『溪西雜錄』 고대본, 성대본.
李源命, 『東野彙輯』 대판부림도서관본, 보고서, 1992.
徐裕英, 『錦溪筆談』
任 墜, 『天倪錄』
柳夢寅, 『於于野談』
辛敦復, 『鶴山閑言』
申 暲, 『直庵集』 한국문집총간 216, 민족문화추진회.
金相定, 『石堂遺稿』, 영남대도서관.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회.
金 榦, 『厚齋全書』 한국문집총간 156, 민족문화추진회.
朴準源, 『錦石集』 한국문집총간 255, 민족문화추진회.
이우성, 임형택 편역 『이조한문단편집』 上(1973), 中·下(1978).
정신문화 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

■ 저서 및 논문

- 조희웅,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 『이야기문학 모꼬지』, 박이정, 1995.
임형택,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정명기, 『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서, 1996.
정명기 엮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2, 3, 보고서, 2001.

-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 관련자료집 I』, 태학사, 2001.
- 투샤오핑 지음, 조미원 등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7.
- 김영진, 「기리총화 연구」, 『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 정명기, 「야담의 변이양상과 의미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상조, 「계서야담계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경우, 「초기 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이병찬, 「동야회집 연구-청대 문언소설집 『諧鐸』의 수운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두정립, 「동야회집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윤세순, 「동야회집의 성격 고찰」,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1.
- 홍성남, 「동야회집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2.
- 김혜숙, 「전·기사(기사)·야담의 대비적 고찰」, 『한국 판소리, 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 이현택, 「계서야담 연구」 上, 『국어교육』 46,7합집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3.
- 임완혁, 「계서야담의 서술방식에 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9집, 1996.
- ,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한국한문학회, 2000.
- 임형택, 「한문단편과 강담사」, 『창작과 비평』 13권 3호, 창작과 비평사, 1978.
- , 「해제 『청구야담』」, 『서벽외사 해외수일본 청구야담』, 아세아문화사, 1985.
- 정명기, 「청구야담의 편자와 그 이원적 면모-소창진평본을 통하여」, 『연민이가 원선생 칠절송수기념논총』, 정음사, 1987.

Abstract

The editing consciousness of three great Yadam(野譚)
in Cheson dynasty

Im, Wam-Hyuk

This report was written out so as to compare with and research compilatory consciousness among 「Gaesuyadam(溪西野談)」, 「Cheongguyadam(青邱野談)」, and 「Dongyanghuigyp(東野彙輯)」. And it also considered the aspect of change, from the descriptive point of view, coming from the acceptive process of records in the former ages.

「Gaesuyadam(溪西野談)」 accepted the remnant of the narrative elements as it was, but it could make the descriptive progress in receiving 「Donpaeraksong(東稗洛誦)」. By doing this, the several things come to accomplish, for example the concreteness of the description, the expansion of conversation, and the input of the fictional situation etc.

「Donpaeraksong(東稗洛誦)」, of course it can be the typical story book of an unofficial historical tale so called Yadam, is a kind of book to fill up the descriptiveness to the contents of a letter and to increase spirit what one says as it an unofficial history.

The editor of 「Cheongguyadam(青邱野談)」 received the records of the former ages in base himself on the descriptive aspect. And also he did not understand the story in the each record as the historical facts. That is, though he accepted the several descriptive styles based on the factness of Jeon(傳)(a lifehistory), Japsu(雜著)(a Miscellaneous book,) Gisa(記事)(a description), Yadam(野譚)(an unofficial history) and so forth, he had a low opinion of the meaning of the factness. 「Cheongguyadam(青邱野談)」 only became to modify by reprinting the former records at a descriptive stand point. Therefore, it eliminated decisively the aspect of, for example the Human nature technique and the criticism wave in case of Jeon, the personal intimate impressions, and so forth.

In the 「Dongyanghuigyp(東野彙輯)」, there is a phenomenon into the traditional writing style, neg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Yadam. Just like this return tendency, only it is not a problem for form's sake. The human being who is animate at the Yadam(historical romance), being placed

under restraint in the frame of traditional norm and the sense of value, therefore it bears the result where the subject ceremony of the work is distorted it does. Also it distorts the structure of the origin work and combines the entirely heterogeneous data so it becomes expand the narrative volume of the width. And By the frequent use of the conventional expressions, intentional situation production, the reinforcement of liberal arts expression and so forth, the simple expression and the word spirit which Yadam(historical romance) keeps are damage by the liberal arts idea of the high official. With this the same actual condition is confirmed universally from historical romance of 19 century latter halves. When we investigate the works such as 「Gumgaepildam(錦溪筆談)」, 「Gigoan(奇觀)」, etc, the emphasis of the instructiveness, the factness, and the liberal art ideas that they pursue at the 「Dongyanghuigyp(東野彙輯)」 appear.

Finally we Yadam(historical romance) and Chinese writing fragment with the work of the contents which is identical regulation but they exist various aspects according to the time difference and descriptive intention of the recorder. From this process the editing intentions which the editor shows at 「Cheongguyadam(青邱野談)」 show most well what the existence of Yadam (the historical romance) is. Also the narrative intentions of the editor of 「Cheongguyadam(青邱野談)」, when we recalled the fact that the narrative style of volume of Yadam(historical romance) such as 「Cheon-yaerok(天倪錄)」, 「Donpaeraksong(東稗洛誦)」, 「Gaesujaprok(溪西雜錄)」, 「Dongyanghuigyp(東野彙輯)」, 「Gumgaepildam(錦溪筆談)」 and so forth, in the post Yi Dynasty did not get out of the viewpoint of the traditional history book, is a possibility the affirmative thing doing considerably.

Key Word

「Gaesuyadam」, 「Cheongguyadam」, 「Dongyanghuigyp」, the records in the former ages, the transmission of the records , the editing consciousness , the narrative/descriptive consciousness(intentions)